

第26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潭陽 들 노래



全羅南道

潭陽들노래 解説

潭陽은 詩歌와 판소리의 고장이다.

俛仰亭 宋純과 松江 鄭澈은 우리나라 詩歌文學史上 不朽의 名作인 「俛仰亭歌」와 「星山別曲」, 「續美人曲」을 潭陽에 隱居하면서 노래했고, 판소리의 朱德基와 李捺致는 天下를 주름잡은 國唱들이었다. 이같은 영향에서인지는 몰라도 潭陽에서는 다른 고장과 다른 멋들어진 民謡들이 많이 불리어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生活樣式의 變化로 말미암아 固有한 노래들이 거의 자취를 감추어 湮滅段階에 놓여 있다. 이 안타까운 現實을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水北面 一帶에 傳承되고 있었던 農謡를 体系的으로 再定立하여 선보이기에 이른 것이다.

「潭陽들노래」는 일종의 農謡로서 모판을 만들어 범씨를 뿌리고, 모를 심어 논을 맬때까지 불리어진 노래들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노래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一. 모판 만들기 노래 (일명 가래소리)

(1) 아오위 소리

(2) 오이애 소리

二. 모찌기 노래

(1) 오이 소리

(2) 먼들 소리

三. 모심기 노래 (일명 상사소리)

四. 논매기 노래 (일명 미도지기 노래)

(1) 초벌매기 노래

1) 에이소리

2) 지화자소리

(2) 두벌매기 노래

(3) 세벌매기 노래

1) 나 지나소리

2) 오호소리

五. 두렁노래

등으로 되어 있다.

「모판만들기」노래는 가래로 논을 파고 밭아 다지면서 부르는 노래이고, 「모찌기 노래」는 모를 심으면서, 「논매기 노래」는 벼논에서 논맬때 부른 노래다. 「두렁노래」는 세벌매기 즉 만두레를 끝내고서 논두렁에 올라 마을로 向할때 부른 노래다.

潭陽들노래의 特徵은 그 構成面에서 볼때

첫째로 다른 곳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모판 만들기」노래가 아직도 傳承되고 있고, 둘째로는 끝매기 논을 매고 논두렁에 오르면서 부른 「두렁노래」는 「羅州들노래」의 「뜰모리」와 다른 가락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가락과 장단面의 特徵은 「빠른 진양조」, 「세마치 장단」, 「굿거리」, 「중모리」, 「자진중모리」등 多樣한 刑態로 이룩되어 있다.

歌詞內容의 特徵即, 主題는 「임에 對한 그리움과 怨望」, 「人生의 無常」, 「忠孝心의 高揚」, 「勸農思想의 宣揚」등등으로 되어 있다.

歌詞의 一部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民 謠 歌 詞

一. 모판 만들기 노래 (일명 가래소리)

(1) 아오위 소리

(2) 오이애 소리

① 금주금주 우리금주 심은나무 삼정승이 물을 주어

② 육판서 뺨은가지 팔도감사 꽃이로다

③ 꽃이지고 열매열어 각골수령으로 다나간다.

④ 남한산성 오동목은 장구통으로 다나간다

〈후 렬〉

① 순담양 왕대뿌리는 장구체로 다나간다

② 무등산 상상봉에 감도는 저 구름아

③ 이산정이 어찌간디 떠날줄을 모르느냐

④ 아매도 이산정이 신선오는 곳이로세

二. 모찌기 노래

(1) 오이 소리

〈후 렬〉

① 이논뱀이 모를 뽑아 선영봉상 허여보세

② 이모를 어서찌서 저바닥에 심어보세

③ 모타래 안풀어지게 획돌려 잘들뉘세

(2) 먼들 소리

〈후 렬〉

① 이농사가 풍년되야 동지섯달 생일세네 (후렬)

② 모 찌기일은 멀었는데 한그릇 생각이 웬말인가

③ 잎담배를 짹짹 찢어 조대통에 붙여보세

④ 큰애기 솜씨로 술을 빚어 총각먹으면 장가를 가지

⑤ 울넘어 담넘어 깔비는총각 눈치만있으면 떡받아먹소

⑥ 떡일랑 받아서 팔매를치고 내 손목잡고서 넘놀아난다

⑦ 다되었네 다되었네 모찌기가 다되었네

三. 모심기 노래 (일명 상사 소리)

① 한일자로 늘어서서 입구자로 모럴심세

② 먼대 사람 듣기 좋게 북장구장단에 모럴심세

③ 앞산은 점점 멀어지고 뒷산은 점점 가까오네

④ 상사소리는 어데갔다 때만찾아 돌아온가

⑤ 일락서산 해는지고 한그릇 생각이 절로나네

⑥ 이배미를 끝을내고 장구배미로 넘어가세

〈후 렬〉

① 어우러진다 어우러진다 상사소리가 어우러진다

② 순담양 왕대뿌리는 장고체로 다나간다

③ 이상사가 뉘상산가 김참봉네 상사로세

④ 흥감사 댕기는 붙어야 좋고 큰애기 속곳은 넓어야 좋네

⑤ 철부덕 소리가 웬소리 아랫집 큰애기 매잠는소리

⑥ 다되어가네 다되어가네 이논배미가 다되어가네

四. 논매기 노래 (일명 미도지기 노래)

(1) 초벌매기 노래

1) 에이소리

- ①에 ~ 이오 호호호에이(어어어어)
- ②오날도 오날도야 심심허어네 (위여)
- ③에이 오호호호 에이 부덤섬 부덤섬아 다시보오네(위여에라아 ~ 하아 아호 헤이에어하)
- ④여보소 농부님들 지심노래 허여보오세 (어얼시구)

2) 지화자 소리

〈후 렬〉

- 남원산성 윤열이는 채쪽으로 다나간다
- ②문경세제 박달나무 홍두깨방망이로 다나간다
- ③순 담양 왕대뿌리 소고채로 다나간다
- ④뒷동산 먹감나무 할량북채로 다나간다
- ⑤불과같이 더운날헤 매을같이 지심매세
- ⑥오란다네 오란다네 담양처녀가 오란다네
- ⑦씨암닭 잡아놓고 돌이먹자고 오란다네

(2) 두벌매기 노래

〈후 렬〉

- ①널치잡고서 떨어지 떨어
- ②잘도 한다고 떨어지 떨어
- ③풍년을 맞았고 떨어지 떨어
- ④오곡초 심어서 떨어지 떨어
- ⑤우순 풍작이 떨어지 떨어
- ⑥다마금 좋다고 떨어지 떨어
- ⑦날만 새면 떨어지 떨어
- ⑧우리 농군들 떨어지 떨어
- ⑨비묻어 온다고 떨어지 떨어

(3) 세벌매기 노래

1) 나지나 소리

- ①추월산만 명산인가 광주에 수양산도 명산일세
- ②수양산만 명산인가 담양에 삼인산도 명산일세
- ③삼인산만 명산인가 나주에 금성산도 명산일세

2) 오호 소리

- ①다되야가네 다되야가네 이논글수 다되어가네
- ②일락서산에 해는지고 월출동령에 달 솟아오네
- ③여보소 농부님네 갈정막자고 술동이뗏네

五. 두렁 노래

- ①머슴은 가래메고 황소를타고
- ②농군은 흥에 겨워 춤을추네
- ③가세가세 어서들 가세
- ④참봉댁으로 들어들 가세
- ⑤다했구나 다했구나
- ⑥춘하일을 다했구나

總 高 證 · 記 畵
池 春 相 (全 南 大 教 授)
導 道 · 記 畵
丁 烘 秀 · 金 香 順